

양산에 복지시설 '미륵원' 개원

홀로된 할머니·편모가족등 10가족 수용 요사채·선방마련 농사지으며 실행생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 추워지는 이 때, 그들을 위한 새로운 보금자리가 생겨 따뜻한 화제가 되고 있다.

경남 양산시 불금읍 중산리소재 미륵원(원장 정영순)이 자식으로부터 외면받은 할머니, 의처증, 주부 등 남편으로부터 고통받아 갈 곳 없는 편모가족이 함께 사는 복지공간으로 꾸며진다.

집이 있고 가족이 있으면서도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하는 이들의 위안처가 될 미륵원은 1천8백평의 대지에 건평 1백여평 규모로 부처님을 모신 본채와 별도 요사채에 13개의 방이 있으며 마음의 안정을 위한 선방을 갖추고 있다.

미륵원은 83년 정원장이 자신의 집을 불자들에게 신행공간으로 개

방한 곳인데 이번에 버림받은 이들이 모여살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할머니와 편모가족을 합친 10가족이 함께 생활하게 되는데, 이들은 미륵원 인근 밭농사나 이불 보시 등에 일손을 보태며 새로운 대가족을 이룬다. 자신의 친가족으로부터 받은 시린 상처에 탄탄한 치유의 환경을 서로 감아주며 살게 되는 것이다.

가장상의 문제로 자녀들을 보살피지 못한 아픈 과거를 가슴에 묻고 있다는 정원장은 "모든 것이 부처님의 뜻대로 될 것임을 굳게 믿으며 용기를 냈다"고 밝혔다.

또 정원장은 "운영비나 가족들 생활비는 개인사업인 이불집 수익금으로 충당하게 된다"며 "미륵원이 어려운 이들이 가져다 주는 공



미륵원은 어려운 사람들이 무료로 가족과 함께 들어와 생활하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진다.

양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이들에게 무엇인가를 베푸는 부처님 도량이 되게 하겠다"고 피력했다.

앞으로 미륵원은 소년소녀가장 초청 여름보교캠프, 공동체 생활 등의 프로그램 등 사회에 불법을 퍼

는 복지의 장으로 폭넓게 활용될 전망이다.

미륵원은 가족들을 이끌어가고 수행할 비구니스님, 함께 살 가족들을 찾고 있다. 문의 051) 634-5114. 친미회 기자

(mhcheon@buddhapia.com)

천안 영락사 낙성법회

영탑공원도 조성

천안 영락사(주지 진관)는 19일 오후 2시 참견낙성 및 가족, 문중 영탑공인 준공법회를 갖는다.

백계 초 도읍성지 위대한 3천평 부지에 조성되는 영락사는 불자들의 기도성지 및 가족, 문중의 영탑공원을 조성하여 포교와 장례문화 해원에 나서게 된다.

영락사는 현재 18기 수용의 가족형과 30~60명이 들어가는 문중형

영탑 12기를 조성하여 7백여명의 납골을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영탑은 19일부터 일반에 분양될 예정이다. 0417) 584~6674.

주지 진관스님은 "가족과 문중 영탑묘를 통해 친족간 유대를 강화하도록 했다"며 "불교장례문화 보급과 지역불교 포교를 위한 포교전법도량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전북불교회관 생명살리기 운동

5-19일 수자령 천도제

성교육·낙태금지 서명

올바른 성문화 캠페인과 상담을 통한 참 생명 살리기 운동이 펼쳐진다.

전북불교회관(법주 수진스님)은 9일부터 15일까지 태아아기령(수자령) 천도제를 열고 참 생명 살리기 운동에 본격 돌입한다.

이를 위해 전북불교회관은 2층 청년회 사무실에 청소년상담소를 올해 설치하고 중·고등학교생, 대학생, 청년회, 20~30대 부부를 위한 성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낙태금지서명운동, 자연피임법교육, 소년원생과 청소년의 비디오테일 시청, 10주된 태아의 신택프로그램과 손 플렉시달아주기 등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수진스님은 "현재 난잡한 성문화가 형성되어 한해 150만명이 낙태를 하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소년원생, 중·고생, 대학생, 청년회, 20~30대 부부들 젊은 층을 대상으로 생명살리기 운동을 펼쳐 올바른 성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전북지역 불교대학

체육대회로 화합다져

전북불교총연합회(회장 도영스님)는 7일 전주신내체육관에서 전북지역 불교대학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군산, 남원, 이리, 전북, 화엄 불교대학, 금산중·상고등이 참가한 이번 체육대회는 줄다리기, 배구, 삼각경기, 대동놀이 등의 행사가 펼쳐졌다.

도영스님은 "전북지역에 있는 불교대학간 서로 협력하여 정보교환과 화합으로 21세기 미래를 밝히는 불자대학이 되기를 바란다"고 행사취지를 밝혔다.



태고종 광주·전남총무원회는 10월28일 광주 망월동 5·18 신묘역에서 민주영령천도 및 10만 관동법회를 개최했다.

5·18 민주영령 천도제

사부대중 3천명 참석

태고종 광주 전남 총무원

태고종 광주·전남총무원(원장 금명)은 10월 28일 광주 망월동 신묘역에서 5.18 광주민주영령 천도 및 10만 관동법회를 개최했다.

인곡(태고종 총무원장) 천운(광주불교사암연합회장) 고재유(광주시장) 정수만(5.18 유족회장) 김두

원(광주 전남불교신도회장) 등 3천여 사부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전통 불교의식으로 열린 이날 법회에서는 금명스님은 "진실한 보시와 참회로 나와 주변을 정화하고 나라의 발전과 불교발전을 위한 정진의 장을 마련하자"고 말했다.

인곡스님은 법어를 통해 "5·18 희생자들의 뜻을 받들어 어려움을 극복하고 화해와 이해정진으로 희망의 등을 밝히자"고 말했다. 이어 박원일법사의 특강이 있었다.

주용직 광주지사장

전국신도회 10만 불자 정토결사

대한불교전국신도회(회장 선진규)는 10월 31일 김해 정토원에서 제1차 10만불자 정토결사 전진대회를 개최했다.

호미든 관음 성상 봉안식에 이어 열린 정토결사 전진대회에는 지역 스님과 김영일 국회의원을 비롯 사부대중 2천여명이 동참했다.

선진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불교의 지력과 타력 신앙을 하나로

하여 불교정토화하는 정토 결사를 통해 탐진치를 없애는 새로운 불교운동을 이끌어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10만불자 정토결사 취지문을 선포하고 정토결사를 다짐하는 발원문을 낭독하며 신행목표의 실천을 통한 정토결사의 뜻을 다졌다.

친미회 기자

노숙자 쉼터 체육대회

부산보현의집 종합우승

노숙자쉼터 부산보현의집(원장 이기표)이 10월 31일 해운대 솔밭공원에서 열린 노숙자쉼터 연합 체육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10개 노숙자쉼터 시합에서 참가한 체육대회에서 부산보현의집은 축구 우승, 족구 2차전 승리로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친미회 기자

6.25전쟁 당시 미군의 노르리 주민 학살사건의 당시지였던 데일리씨(68)는 지난 4일 노르리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격명령이 내려졌고 나는 군인이기 때문에 명령에 따라야 했다"고 말했다. 반면 당시 장지랑 중령은 해인사 폭격을 명령

받고도 팔만대장경을 지키기 위해 단호히 명령을 거부했다. 그리고 역사는 명령을 거부한 장중령의 결단을 높이 평가했다. 민족의 성보를 지키기 위해 따를 수 없었던 명령. 그것은 군인으로서의 목숨을 내건 용기에 대한 훈장이다.

목숨 걸고 지킨 민족문화재

20세기 불교 그 현장 그 인물 (5)

팔만대장경 구한 장지랑씨

6.25당시 폭격으로 한중의 재로 사라질 뻔했던 팔만대장경을 지켜낸 두 군인 장지랑 중령과 김영환 대령. 이 두 사람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지금쯤 팔만대장경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을 것이다. 그중 한사람으로 생존인물인 전 공군참모총장 장지랑 장군(75). 그는 팔만대장경이 지켜질 수 있었던 이유를 바로 '불력(佛力)' 때문이라고 말한다.



목숨을 걸고 해인사를 지킨 장지랑 장군.

51년 8월 경남 사천에서 제1전투비행단 작전참모를 맡고 있었던 장중령에게 미국비행공군단으로부터 해인사 폭격명령이 하달됐다. 산청경찰서에서 해인사가 빠치신 1개대대에 의해 점령당했다는 보고를 받고 상부로 보고서를 올리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장중령은 즉시 전투비행단에 폭탄과 로켓을 장착한 F-51전투기 4대의 출격대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아찔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해인사라면 팔만대장경이 있는 곳 아닌가?'

장중령의 머릿속에서는 많은 생각이 스쳐지나갔다. '2차 세계대전때 프랑스의 한 장군이 피리를 지키기 위해 독일군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이 있었는가. 팔만대장경이라면 세계적인 문화재인데 인민군 몇명 잡자고 해인사를 폭격하겠다는... 장중령은 고민 끝에 결심은 굳히고는 전투비행단장인 김영환 대령과 상의했다. '명령을 따를

6·25때 폭격명령 거부 사형위기사 구사일생 "대장경 법적 확신해요"

것인가. 아니면 팔만대장경을 지킬 것인가.' 속의 끝이 장중령과 김대령은 명령을 거부키로 했다. "불치산들이 해인사를 점령한 것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였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래 있지 않을 것이고, 해인사를 빠져나왔을 때 폭격을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명령을 묵숨으로 여기는 군인에게 이런 결심은 목숨을 거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출격이 지연되자 상부에서는 전투기를 출격시키라는 독촉명령이 계속 하달됐다. 그러나 장중령은 시간을 끌었고 결국엔 날이 어두워져 출격이 중단됐다. 이갈

은 사실은 골 닦시의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급기야는 총살도 아닌 '포살(砲殺)' 명령이 내려졌다. 그러자 김정렬 당시 공군참모총장이 방패역할을 맡고 나섰다. 김참모총장은 팔만대장경을 지켜야겠다는 장중령의 뜻을 위로 전하는데 성공했다.

"내가 불교신자였기 때문에 명령을 거부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팔만대장경은 종교를 떠나 우리의 문화유산이고, 군인은 국민과 국가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으로서, 군인으로서 순리에 따랐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리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보이지 않는 힘이 바로 팔만대장경을 제작하면서 의도했던 부처님 가피력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장지랑은 전쟁이 끝난 뒤에 팔만대장경을 직접 보고는 당시의

결정이 현명한 판단이었음을 새삼스러웠다고 회고했다. 만약 군인정신만을 고집하며 상부의 명령대로 해인사를 폭격했다면 이렇게 위대한 문화재가 흔적없이 사라졌을테고, 후손들에게는

찾을 수 없는 죄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다고 말했다.

"자주 가지는 못하지만 아내와 함께 사찰을 참배하면 꼭 팔만대장경의 불력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도 팔만대장경이 있는 한 우리 강토는 꼭 지켜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장지랑은 66년 제9대 공군 참모총장에 임명됐으며 68년 8월에 예편했다. 69년부터 79년까지 이디오피아, 필리핀, 덴마크 대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군사학회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당신은 본래 청정하고 신성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멋진 길이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밝은길 아바타센터

마스터/위저드 김희균 합장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TEL: (02)396-2736 H.P: 016-228-2358

釋氏香方 五分香 · 生氣香

새천년의 신비한 향
스님께서 직접 만든 향

석씨향방은 순수한 한약재료로만 만듭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심화불교대학 사업부에서 부처님께 올리는 최고의 공양인 오분향과 어떠한 장소와 행사에도 쓰이며, 특히 건강을 지켜주는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향은 佛法僧 三寶에 올리는 최고의 공양으로 최고의 경지인 해탈을 뜻합니다.

특히 오분향은 『大般若經 卷四十九』에 나타나 있듯이 계향(戒香), 정향(定香), 혜향(慧香), 해탈향(解脫香), 해탈지견향(解脫知見香)을 말하며, 계향(戒香)은 계를 잘 지키는 향기, 정향(定香)은 선정으로써 탐진치 삼독을 벗어나 적정에 드는 향기, 혜향(慧香)은 명상력을 통한 지혜의 향기, 해탈향(解脫香)은 지혜의 통찰력인 혜를 통해 얻어지는 절대자유의 향기, 해탈지견향(解脫知見香)은 해탈을 통한 구별력과 사리판단의 향기를 의미합니다.

『華嚴經』普賢行願品에 향의 열가지 효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1. 정신적인 에너지를 충전시켜 준다.
2. 몸을 깨끗하게 해 준다.
3. 몸의 따뜻하고 시원함을 조절해 준다.
4. 수면을 안정시켜 준다.
5. 얼굴빛을 돋보이게 해 준다.
6. 정신을 상쾌하게 해 준다.
7. 눈과 귀를 신선하게 해 준다.
8. 건강에 도움을 준다.
9. 사리시력을 북돋워 준다.
10. 품위를 높여준다.

『華嚴經』 선재행품 제4권 30에 선재동자는五分향을 찾아가서는데 龍藏이란 향이 있으니 중생이 그 향기를 맡으면, 번뇌가 침노하지 못하고 이해 동안 기쁜 마음이 가득하고 몸과 뜻이 쾌락하며 편안할 생각이 나며, 모든 법이 소멸되고 여러 가지 번뇌와 근심걱정이 없어져서 마음이 깨끗해진다. 그리고 계향·정향·혜향·해탈향을 얻어 해탈해지듯 향을 얻어 삼마삼보의 향을 얻는 것이라고 하였다.

오분향은 거룩한 향으로서 항상 중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육근 청정하고 복덕이 귀족하는 인연을 지어줍니다.

五分香

生氣香

五分香 ...

- 효능: 화엄경 보현행願品에 열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 용도:
 - 불보살께 예물 기도할 때(향공양을 올려놓고 오분향게를 한다)
 - 제사 지낼 때(천신·지신·조상)
 - 불결한 장소를 깨끗이하고 싶은 때(악취가 나는 곳)
 - 공포를 느낄 때(사기·요마·귀신·도깨비 등)
 - 조상의 명복을 빌때(상각지, 영안실)

生氣香 ...

중국 황제가 천하제일 향으로 인정받은 보현향 처방입니다. 보배중에 가장 으뜸으로 인정된 향입니다.

- 효능:
 -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집중이 잘 되며, - 마음이 안정되고
 - 수면이 순조롭고 피로하지 않습니다. -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 명료·중풍·폐·간·심장을 다스리는 대표적인 한약재를 첨가하여 더욱 향의 짙을 높이고 보현향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 용도:
 - 공부할 때, 집안에 악취가 날 때, 건강을 원할 때

● 오분향과 생기향을 만든 동기

향을 사후에 부처님께 공양하려 염부 수행 20년이나 간에 이름모를 각 가지 향을 접하였는데, 향을 피울때마다 머리가 아프고 눈이 멀고 기침이 나고 목이 따갑고 기관지 등에 이상이 생겨 매우 괴로워서 향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외국 향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엄청난 외화 낭비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제자 소남은 우리 몸에 해롭지 않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향을 생각하게 되었으며, 여러 경전을 통하여 향 만드는 법을 알아서 연구하기 10여년 일생 소원이었던 부처님 최고 공양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인공 화학물질이 전혀 들지 않고 순수한 천연재료로만 만들었습니다.

향을 사랑하는 향기로운 여러분, 이제 안심하시고 향을 가까이 하십시오. 확 달릴 새천년의 신비한 향!

여기 우리 문화와 전통을 살리며 향을 전문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서 인정받은 석씨향방의 오분향과 생기향을 사용해 보십시오. 옛 선인들에게서 향을 가까이 했을가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 불자들에게, 삼보님께 그리고 존경하는 분께 향을 선물하세요. 가장 큰 공덕이 되실 것입니다.

위 상품 판매수익금중 일부는 심화불교대학 교육기금으로 쓰여집니다.

제조원: 만복당
판매처: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1-5
대한불교 조계종 심화불교대학 사업부 해인선원
원장 석가산 스님
전화번호: (02)3446-8148, (02)3444-5828
계좌번호: 국민은행 059-24-0341-979
농협 071-02-25740
한빛은행 550-046374-02-003
예금주: 김정순
※ 전화주문도 가능함 ※

대리점 및 주부 판매사원 모집